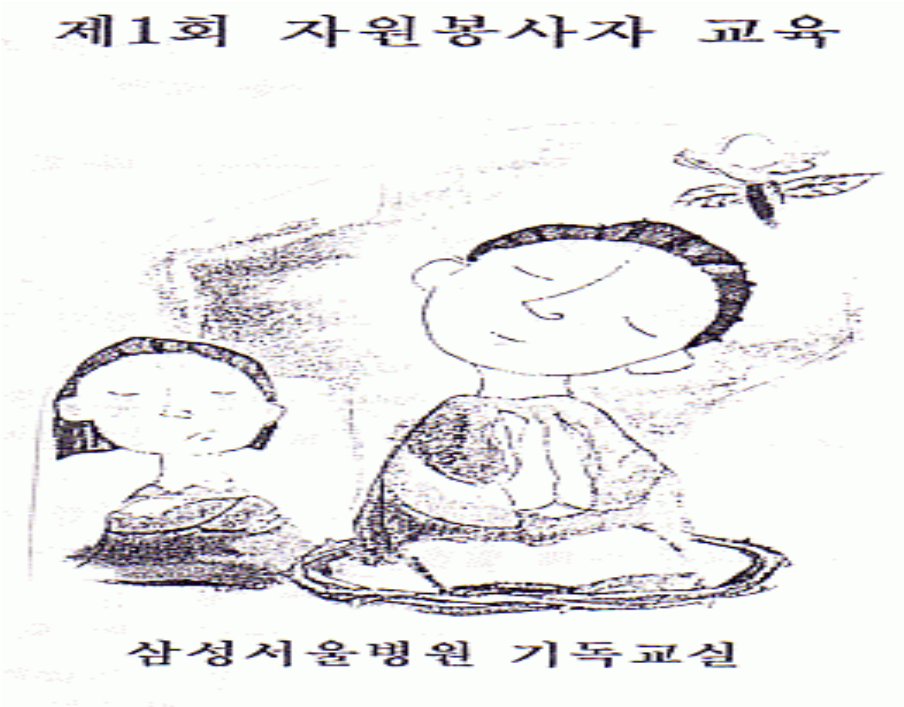
6-7. 자원 봉사자 교육
 * 공식: 연 2회(상, 하반기)
 * 비공식: 새로운 봉사자 오실 시마다



1) 봉사자의 개념
미국의 [사회백과 사전]에 의하면 “자원봉사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는 일을 다루는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하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사전]에는 “자원봉사자란 사회복지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일을 한 후에 반대급수(보수, 지위, 명예 등의 교환조건)를 요구함이 없이 자의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일반적인 입장에서 봄).

2) 병원 봉사자
병원 봉사자는 자신이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후 질병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환자를 마 25:36(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고) 말씀에 의하여 피봉사자(Clients)와 함께 행복한 삶을 형상화해 가도록 구체적인 도움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의하여 위기에 있는 영혼을 구원함에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선교 현장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과 환자를 섬기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태도이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원봉사활동(Volunteer activity)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다.

3) 자원봉사자의 자격
① 65세 이하의 건전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남,여
② 교회와 기독교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삼성의료원이 요구하는 “최고의 서비스정신”에 동의하며 실천하는 자

4) 병실에서의 봉사자 수칙
① 인사
- 인사는 환자와의 첫 Communication이다.
-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에서 환자는 첫 감동을 느낄 것이다.
-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정다움과 친밀감을 실어서 인사하십시오.
- “기독교실에서 왔습니다.”
- “빠른 회복을 빕니다.”
- “기도를 원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는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금, 토요팀)
- 주보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등 부드럽게 접근한다.

② 대화
- 대화! 마음으로 합시다.
- “환자의 마음”은 고통과 불안의 무게를 안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사랑의 온기로 그 무게를 녹여줘야 한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 “오늘은 좀 어떠세요?”
- “많이 힘드시죠?”
- “좋아 보이시군요.”
-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③ 경청
- 경청은 봉사자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 환자의 말에 동의를 표시하며 성의 있게 듣는다.
- 눈은 상대방을 정면으로 보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경청한다.
- 몸은 가까이 바르게 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며,
- 입은 맞장구를(인정) 치면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경청한다.
- 환자의 얘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편견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듣는다.

④ 병실에서의 주의할 점
- 상담 시 환자의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 것과 어떤 의학 상식도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기도원이나 은사자를 소개하지 않는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환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 대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어진 일을 마친 후에 다시 간다(또는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감사하며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기도해 준다.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환자가 쉽게 지치기 때문이며, 사역에 균형을 잃게 된다).

- 수면 중에 있는 분에게는 카드나 소책자 또는 주보를 두고 메모해 온다.
- 면담 중에 의료진이나 간호사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어서 우선권을 준다.
-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병상에서 찬양은 금한다.
- 헌금을 줄 경우 주일 예배 시 하도록 안내한다.
- 음료는 병원 규칙상 가능한 적당히 거절한다.
- 주일예배 시간을 상세히 알려주고 수술자를 파악한다.(수술 날자, 시간 등)
- 환자의 주사 줄이나 치료 기구를 밟지 않도록 조심한다.
- 열린 마음을 찾아, 전도는 적극적으로 하되 거절하는 자에게 억지로 하지 않는다.
- 타 종단 봉사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며 먼저 간단히 인사한다.
- 여러 가지 질문을 심문식으로 하지 않는다.
- 병명을 물을 때에는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어디가 아프신지 알아도 될까요?”한다. 병명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되묻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조용히 대화한다(너무 작으면 위축된 느낌을 준다).

⑤ 기도
- 기도는 환자에게 생명을 준다.
- 기도 시 손을 살짝 잡고 하든지 어깨에 손을 살짝 얹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상황 판단이 필요함은 안수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한다.
- 기도는 길지 않아야 하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도록 한다.
- 기도는 준비되어야 하며 미사어구 보다는 실재성이 곁들여져야 한다.
- 환자의 병 상태를 알고 기도하자(어디가 편찮으신지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⑥ 전도
- 병원은 황금어장이다. 병실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심리적 상태가 다르므로 아무에게나 전도하지 않는다.
- 상담과 기도를 통해 믿지 않은 옆의 환자의 상태를 영적 통찰력으로 살펴보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도한다.
- 전도 방법은 각자 체득된 방법으로 하되 사영리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최근 “전도폭발”이 유행이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환자는 지루하고 지치고 말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끌어내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⑦ 용모 및 복장
- 첫인상이 중요하다. 호감과 신뢰가 가도록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 손질을 한다.
- 화장은 청결하고 생기 있고 자연스럽게 한다. 액세서리는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며 향수는 쓰지 않는다.
- 신발은 오래 서 있어도 편한 것을 신고 소리 나지 않도록 한다.

⑧ 사역보고
- 맡은 층의 환자를 가능하면 모두 만나야 한다. 시간을 잘 분배하여 상담이 길어질 경우 원목에게 위임한다.
- 메모해 온 환자의 수술날짜, 특별심방, 상담, 임종자, 세례여부 등을 상세히 기도노트에

기록하며 보고한다.

⑨ 성경

- 마 25:36-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고
- 벧전 4:11-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 출 35:21-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 골 3:23-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